



2026년 8월 2일(제1311호) 연중 제1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부족함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충분함”

주일미사를 마치고 식당에 들어가면 미사를 함께 봉헌한 수병들이 간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사 전에 브런치를 먹고 왔어도, 병사들은 배고픔과 부족함으로 무장했는지, 간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해치웁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은 식당에 비치된 라면 기계를 이용하여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어느 간식을 건네주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을 보면,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충분하게 먹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수병들의 모습은 군종신부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미사 안에서는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미사 후에는 다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음을 주일마다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은 부족함과 충분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군종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상황 안에서 제자들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가진 것은 아쉬움의 도구가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양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것마저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께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주어진 것으로도 만족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지난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언행을 통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은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충분히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충분하고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미사 때마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부족함을 안고 있더라도 충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욱(세례지요한) 신부
인포대(해군 제2철대시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55,1-3

회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 2 독 시

로마 8,35.37-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마태 14,13-21

영성제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천주교 군중교구사(군 사목 50년사)

초대 군중차감으로 보직된 안 신부는 2급 6호(현역 중령 대우)의 문관 신분이었다. 그 해 12월 유급 문관을 현역 장교로 전환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그는 초임 계급 부여 문제로 1차 임관을 포기하고 문관 신분으로 1955년 2월 28일까지 7개월 동안 군중차감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안 신부는 2차 임관 시 소령으로 명령이 났으나 임관 당일인 1955년 6월 10일에는 임시 중령으로 임관하였다. 그 후 1956년 8월 20일 다시 군중차감에 보임되었다. 그러나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위하여 자유당 정부가 천주교를 탄압하자 그 여파로 그 해 2월 19일 군중차감직에서 강제 해임되었다. 그뒤 4·19혁명이 일어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1960년 7월 1일 군중차감직에 재보직되었다. 1961년 2월 1일에 대령으로 진급하였으나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그 해 7월 30일부로 강제 예편을 당하였다. 한편, 안 신부는 재경지역 즉 육군본부, 육군사관학교, 수도 육군병원 등의 사목을 직접 담당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안 신부는 사목 환경이 가장 열악하였을 때에 군 사목을 위해 장기복무를 한 최초의 신부였으며, 개신교와의 갈등 및 정치적 탄압 등을 무릅쓰고 천주교 군 사목을 위해 젊음과 정열을 다 바친 군 사목의 개척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안 신부는 당시 군중신부단의 발전과 육사성당의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1958년 군에서의 천주교가 나아갈 방향과 위치를 주교회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1959년 춘계 주교회회의 때는 ‘군중신부단 강화책’을, 그리고 같은 해 추계 주교회회의에는 군인주일 제정과 육사성당 건립안 등 7개항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군인주일이 존재하는 것과 군중교구가 설립된 배경, 그리고 육사성당의 건립 등 천주교 군중사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들은 바로 안 신부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안 신부의 군 사목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그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개신교 목사와 장교의 개종 사건이다. <다음 주에 계속>

『천주교 군중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중교구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기적



부족해 보일 거야. 우리 작은 이들과
말도 안 되는 일일 거야. 하늘이 만들어 내는
것이 기적인 거야.

하지만,
그것으로 가능했다지. 그래 오늘 믿음을 안고,
그 기적의 하루를
그것이 믿음인 거야. 살아보는 거야.
그러니 기적인 거야.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지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연작



지난달에는 윤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님의 생애> 연작 가운데 여덟 작품을 소개했다. 이번 주부터는 아직 소개하지 못한 작품들을 이어 살펴본다.

<예루살렘 입성>

우리에게도 낯익은 도성과 저잣거리가 펼쳐지고,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군중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다.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의 다양한 차림새를 보면 천민과 농민, 상인, 양반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부터 한량과 기생에 이르기까지, 화가는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이를 품는 복음의 보편성을 한 편의 그림에 담아내었다.

<최후의 만찬>

양반택의 넓은 마루에 상을 펴고 바닥에 앉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인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상을 둘러싸고 앉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유대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저마다 다른 자세와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아도, 누가 유대인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여러분은 누가 유대라고 생각하는가?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8주일: 해군항공사령부 김동원 신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 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문의: 010-2992-2649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존인성사의 해